



## 한국인 최초...미국섬유학회 徐文源 박사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과총 회의실

일자 : 6월 21일 오후 3시

# “한국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1961년 경향신문 기자를 거친 재미과학자 서문원박사가 한국인으로 최초의 미국섬유학회장이 되어 활약하고 있다. 서박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섬유공학과 통계학을 전공한 과학자로 이번 한·미 과학협력센터 주최로 6월22일 과총회관에서 열린 한·미 지적재산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 한국인 출신으로 최초의 미국 섬유학회 회장에 취임하신 것으로 압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미국 섬유학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美 섬유학회 회원 7백명

미국 섬유학회(The Fiber Society)는 2차대전 직후인 1947년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지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학문적인 업적을 토대로 추천이 들어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회원은 약 7백명 정도입니다. 미국 섬유학회라 하지만 인적 구성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참여하고 있어 명실공히 섬유분야의 국제학회라 보아도 되겠습니다.

■ 이번 모국을 방문하신 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는지요.

6월 22일 과총회관에서 한·미 과학협력센터(Korea-US Science Cooperation Center) 주최로 한국에서 처음 가진 한·미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 보름 예정으로 왔습니다. 한·미 과학협력센터는 한

국 정부가 6백만달러를 지원해서 1997년 2월 정식 발족되었습니다. 한·미 과학협력센터는 재미 한국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이 미국 특히 재미 한국인 과학기술자들과의 과학기술협력 관계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미 과학협력센터 설립에 徐박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재미 2세 과학자들이 조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길이 없을까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이 문제를 당시 비서실장인 한승수박사(현 국회의원)와 상의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과학재단의 박진호사무총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어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발족되었지요.

앞으로 한국 출신의 2세 과학자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과 인연을 맺도록 주선하는 일에서 한국 기업에 중사

하는 연구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훈련하는 일 등 한·미 협력사업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 徐박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섬유공학과 교수이면서 경영학과 통계학 및 연구관리학 등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신 드물게 보는 석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언론계에도 몸을 담았던 것으로 아는데 섬유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연유가 있었습니까.

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섬유공업과 화학공업 쪽에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것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섬유공학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신문의 기자로 학보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연유가 되어 61년 경향신문 기자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신문사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많이 마셨지요. 그러나 이같은 생활이 한창 배워야 할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해 사직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 섬유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신문기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어 대학신문의 전임기자로 1년 정도 일을 했지요. 그러다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64년 섬유공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섬유공학 박사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69년 통계학으로 전공을 바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무렵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유방직회사인 벌링톤공업회사에서 섬유공학과 통계학을 한 사람을 찾고 있다며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링톤공업회사에서 87년까지 섬유관련 연구관리와 통계분야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 이 곳에

서 주로 한 일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물성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76년부터는 벌링톤공업회사의 연구원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섬유와 의복관리 및 통계분야의 조교수를 겸했습니다. 그 후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요청이 왔

어요. 그래서 섬유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소속은 섬유공학과이지만 통계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섬유공학·통계학 두분야 전공

■ 徐박사의 전공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 계시며 몇 명 정도 한국인 학생을 길러내셨는지요.

전공은 분명 둘입니다. 하지만 섬유공학과 통계학을 합쳐서 하는 것이 전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물론 연구도 통계적인 방법으로 품질관리를 하는 것에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섬유의 물성이라든지 공정을 연구하는 것이 주 특기입니다. 한국인 학생은 박사만 섬유공학분야에서 3명, 통계학분야에서 1명, 연구관리학분야에서 1명을 배출했습니다.

■ 徐박사는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한국의 여러 곳에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방문과학자 자격으로 76년 여름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경제분석실에서 6주 정도 통계분석방법을 경제학분야에 응용하는 일을 도왔고, 방문교수 자격으로 79년 여름에는 서울대학 통



▲ 한국인 최초의 미국섬유학회장인 徐文源(왼쪽) 박사가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에게 한국의 섬유산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계학과에서 통계학의 응용분야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한국은 당시만 해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응용면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한국에 보급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도우며 이에 대한 강연을 하고 신문에 통계청을 만들라는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 한국의 섬유산업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80년 이후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은 물론 시설투자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시대를 맞아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섬유산업단지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섬유산업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섬유산업은 퇴출되어야 할 산업인지요.

### 미국은 섬유산업 적극 지원

76년경부터 효성 등 한국 섬유관련 회사들과 관련을 맺고 자문을 해준 일이 있고 대한방직협회에도 몇 번 초청을 받아 자문에 응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이야기는 70년대 초부터 있었습니다. 사양산업이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듯 없어

진다는 것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섬유산업은 아직도 수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양산업은 없어요. 돈이 덜 벌리고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경영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라 생각해 온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최근 미국도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경상북도와 영남대학교 주최로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제3차 국제 섬유기술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21세기 지역섬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지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구를 중심으로 '세계급 초대형 섬유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1985년만 해도 전체 수출액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97년 13.5%로 줄어든 것입니다만 아직도 섬유수출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섬유산업은 96년 기준 전 생산액의 9.1%, 고용인원의 경우 무려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고용면에서 아직도 한국의 최대 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섬유 전체수출액은 세계 4위, 화섬직물의 경우 점유율이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경북·대구지역은 21세기 세계 섬유산업과 교역에 대변혁을 가져올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이 살아나려면 물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경제기반의 불안정, 지리적인 복로의 차단,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기 힘든 여러 여건, 서구시장 공략을 위한 문화적 배경이 미천하고 정보·컴퓨터·시스템·경영

기술의 취약한 점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갖고 성장해온 경북·대구지역의 섬유단지를 잘 활용하면 오늘의 일본 섬유산업이 누리던 수준을 한국이라 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개발을 통해 제품을 더 싸게, 더 좋게, 더 빨리 생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하이테크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보다는 기존 산업을 공정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섬유산업은 공정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산업입니다. 요즘 한국 정부가 IMF시대를 맞아 섬유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한국사태에 대해 조언하십시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정부에 통계·연구관리 기구를”

한국이 IMF사태를 맞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IMF사태의 원인에 대해 특정인의 정책판단의 잘못을 크게 언론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의 두뇌에만 의존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에 정부에 통계 및 연구관리분야를 다룰 미국의 OMB(관리예산국)와 같은 기구를 두었으면 합니다. 미국은 어떤 장관이 프로젝트를 내놓을 경우 OMB가 타당성 조사와 비용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OMB의 분석에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상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장관이 유능하다 해도 장관 한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됩니다.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재미한인학교협의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재미한인학교협의회는 과학기술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봉사활동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재미한인학교협의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초기부터 관련을 맺었지만 회장은 94~95년했지요. 재미한인학교협의회는 재미 한인 2세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1981년 발족되었습니다. 한인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74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 보로에 토요학교를 개설하고 14년간 교장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 중에 같은 뜻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 재미한인학교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한인학교협의회 회장은 86년부터 88년까지 했고 이사장은 97년 7월부터 3년 임기로 맡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1천여개 학교가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미한인학교협의회가 모체가 되어 뉴욕에 한미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꿈입니다.

■ 끝으로, 가족사항은--.

저의 뒤에서 항상 내조를 해준 집사람 김지숙(서울대 약대졸, 60세)과 슬하에 Abbott사 부장인 장남 서동빈(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원졸, 34세), 현직 VISA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큰딸 서은미(듀크대졸, 29세) 그리고 손자 서요난(4세)이 저의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㉟